

한국도서관협회 제35회 전국도서관대회

— 현장 사서들의 논문 발표·도서관인윤리선언 선포 —

우리협회는 10월 30일(목) 부터 11월 1일(토) 까지 설악 한화리조트(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도서관, 정보화사회의 기수’라는 주제로 제35회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하였다. 일반참가자 1,000명, 내빈 및 전시회 관계자 등 300명 등 총 1,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논문공모를 통해 채택된 현장사서들의 논문 13편이 대회장에서 발표되는 한 편 첨단학술정보센터, 전국사서협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하이텔 동호회 ‘열린도서관(OLIB)’,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정포럼위원회, 서울시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 등이 마련한 10여종의 각 종 세미나, 포럼, 워크샵이 각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참가자들은 그 어느 해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야 했다. 또한 (주)삼성전자, (주)아해, 한국스웨츠, 지오네트, 엠스코인터내셔널 등 24개 업체가 참가한 전시회도 성황을 이루었으며 1년여간 준비해 온 ‘도서관인윤리선언’도 개최식에서 선포되었다(관련기사 37쪽 참조).

이번 '97년 대회의 특징은 예년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 회의실에서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참가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다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교수 위주의 논문보다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사서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였다는 점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반면, 각 종 회의장에 ‘빈자리’가 너무 많았다는 민망스러운 지적도 적지 않았다.

기조연설 및 특별강연, 주제발표 논문의 제목 및 발표자 명단 그리고 각 종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기초연설, 특별강연, 주제발표 논문제목 및 발표자 명단

기조연설: 또다시 도서관인의 사명을 생각하며(정기영/국립중앙도서관 관장)

특별강연: 전자잡지의 서지통정과 접근(김태민/美 인디애나대학 도서관 사서)

주제발표

- 제1주제: 학교도서관의 멀티미디어화를 위한 모형개발(김용철/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 제2주제: 고등학교 교과과정으로 신설된 「정보와 매체」의 성격과 내용(함명식/금육고등학교 사서교사)
- 제3주제: 지방화에 따른 공공도서관 발전방향(김지봉/경기도립포천도서관 관장)
- 제4주제: 고문서·고서·향토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대한 지역도서관의 역할(양상숙/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 제5주제: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외소재 한국관계자료 수집과 활용(이재선/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과 사서)
- 제6주제: 이야기시간(송영숙/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
- 제7주제: 청각장애인<농아인>을 위한 독서지도(박용두/서울농아교회 청각장애인 독서연구원장)
- 제8주제: 이원화 분류법 운용도서관의 분류 단일화 방안(이희수/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사서)
- 제9주제: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상위성에 관한 고찰(양태진/인천대학교 동북아 발전연구원 상근연구원)
- 제10주제: 전자미술품을 위한 회화작품의 주제색인 방안에 관한 연구(정선영/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제11주제: 인터넷 WWW을 이용한 정보서비스(배금표/순천대학교 도서관 사서)
- 제12주제: 통합검색엔진을 통한 정보서비스(허원욱/선문대학교 도서관 사서)
- 제13주제: 디지털 정보시대의 도서관 서비스의 질관리(조윤희/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

▶ 각 중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자 명단

포럼. “학교도서관의 운동의 방향”(서울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 진행)

발표자: 함명식(서울금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이덕주(서울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세미나1. “PC통신을 이용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및 정보교환”(PC통신 하이텔 동호회 ‘열린도서관’(OLIB) 진행)

발표자: 전창호(theMASK,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학년)

사 회: 박진우(anto11,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세미나2. “첨단학술정보센터와 학술정보서비스”(첨단학술정보센터 진행)

발표 및 진행: 오경목(첨단학술정보센터 선임정보연구원)

세미나3. “현장 사서직 운동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전국사서협회 진행)

발표자: 조윤희(전국사서협회 회장·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사서)

사 회: 김현철(동아대학교 도서관 사서)

워크샵1. “원문/전문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방안” (지오네크 진행)

워크샵2. “원문검색시스템” (삼성전자(주) 진행)

워크샵3. “효율적인 잡지구독을 위한 제안” (한국스웨츠(주) 진행)

워크샵4. “도서관에서의 멀티미디어 영어교육자료의 활용방안과 사례”((주)아해 진행)

워크샵5. “도서관 전산화 및 Digital Library를 위한 Solution”(EBSCO International진행)

라운드테이블1. “전문대학도서관의 발전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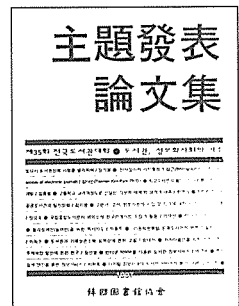
발표 및 진행: 박형림(신구전문대학 도서관 사서)

라운드테이블2. “디지털 도서관 논의의 功過”(부산대문정포럼위원회 진행)

발표자: 이수상(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토론자: 조왕근(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이혜연(도서관운동연구회 대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구입문의: 협회 사무국, (02)535-4868, 1책 5,000원〉

개 회 사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도서관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법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만추지절에 설악산과 동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이 곳 속초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서른다섯번째 전국도서관대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도서관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태호 문화체육부장관님, 이명현 교육부장관님, 그리고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과 속초시 및 속초시교육청의 관계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빼어난 고장에서 이번 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환영하여 주시는 동문성 속초시장님과, 오늘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여러 모로 도와주신 이영찬 속초도서관장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보화사회에 들어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우리 도서관계는 그에 걸맞은 역할을 모색하고, 스스로가 자기변신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보화사회를 성숙시킬 수 있는 도서관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는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도서관인윤리선언’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기약하는 우리들의 의지를 안팎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며,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도서관인의 사명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정기영 국립중앙도서관장님의 기조연설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번 대회의 주제를 ‘도서관, 정보화사회의 기수’로 정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전문적인 검토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전국의 도서관인 가족 여러분,

지금은 앞으로 국가경쟁력의 중심축이 될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도서관인 모두가 적극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서관이 우리 사회와 국가 발전의 초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자신도 비로소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고 있다는 긍지와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도서관이 중심이 되는 정보화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 참여합시다. 이번 대회 기간 중 그러한 우리 자신의 각오와 새로운 방안을 함께 찾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정기영 국립중앙도서관장님과 주제발표를 해 주실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각종 포럼, 세미나, 워크샵, 라운드테이블 등의 행사를 진행해 주실 단체 관계자 및 전시회에 참여해 주신 관련 업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한국도서관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참가자들께서는 이번 도서관대회가 도서관 가족의 화합과 단결, 축제의 시간이 되며, 나아가 도서관이 미래 정보화사회를 이끌어 나갈 선도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생각하고 협력하는 모임으로 만들어 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0월 30일

한국도서관협회장 사공 철

격려사

존경하는 동문성 속초시장님과 이영찬 속초도서관장님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 사공철 회장님을 비롯한 도서관인 여러분!

만추시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수가 수려하다는 설악산에서 『제35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서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인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가 중심이 되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계각국에서는 2000년대의 새로운 밀레니엄을 대비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고,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시민 의식을 고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문화의 날 기념식장에서 『문화비전 2000』 보고서를 통하여 발표했듯이 문화는 삶의 질 향상의 기본요소이며, 민족의 정체성 확립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민족 통일과 화합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는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지배적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문화의 시대를 대비하여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보존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초월하여 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정보매체의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변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서관인 여러분들은 미래 산업사회와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져가는 공인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기간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495개 관종별 도서관이 참여하는 도서관정보전산망을 올해말까지 완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200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국가문헌 보존을 위한 보존서고동 건립 추진과 함께 2000년대까지 국가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복지 기반의 증추공간인 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현재 350관인 공공도서관을 2011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6만명당 1관인 750관으로 확충하고, 자료구입비와 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증액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도서관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걸어온 길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 보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간 이 대회를 통하여 논의되고 제시되었던 많은 대안들이 우리 도서관 발전의 기틀이 되었음을 도서관인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대회에서도 다가오는 문화의 세기인 첨단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도서관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론 함으로써 도서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인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도서관의 소관부처가 다르고, 처한 여건이 상이하더라도 도서관발전을 위해 일한다는 일념으로 서로 협력하여, 공공도서관은 문화정보 공간으로, 대학과 학교 도서관은 자라나는 세대의 지식공급원으로, 전문 도서관은 다양한 정보의 공급처로, 특수도서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벗으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더욱더 매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국도서관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신 강원도 관계관 여러분과 이 대회를 준비하신 한국도서관협회 사공철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0월 30일

문화체육부장관 송 태 호